



PACT
No Plastics
in Nature

A WWF INITIATIVE FOR
A CIRCULAR ECONOMY AND
NO PLASTICS IN NATURE BY 2030



imPACT REPORT

PACT(Plastic ACTion)
성과보고서 2025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3,800만 명 이상의 서포터즈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의 미션은 자연 파괴를 막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 자원이 지속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자원 낭비와 오염을 줄이는 인식 증진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4년 공식 설립된 한국WWF는 ‘지구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f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박민혜
작성자: 전수현
감수자: 임익순, 이규호
발행일: 2025년 7월
발행처: WWF(세계자연기금)
문의: plastic@wwfkorea.or.kr

디자인 작업: 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 Shutterstock / Roman Mikhailiuk / WWF

본 보고서 전체 혹은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아래 인용 표시를 참고하여 출처와 저작권을 표기하고 위에 열거된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Text 2025 WWF-Korea
All rights reserved



목차

서문	2
제1장 플라스틱 감축 이니셔티브, PACT	
PACT(Plastic ACTION) 소개	6
PACT 마일스톤	8
기업의 공동 플라스틱 감축 성과	12
imPACT funds 활동	18
Plastics, Health, and One Planet 보고서 소개	26
제2장 나아갈 길	
2025-2030 No Plastics in Nature 전략 소개	32
실행을 위한 핵심 기반	34
맺음말	36

감축을 넘어 순환경제로 가는길,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한국WWF 사무총장
박민혜

플라스틱 오염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과 생태계, 인간의 건강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을 포함한 국제사회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협약 추진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문제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WWF는 2021년부터 PACT(Plastic Action)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업들과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실천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PACT 참여 기업은 15개이며, 2024년에는 14개 기업이 총 12,457톤의 플라스틱 감축 성과를 이뤄냈고, 재활용률 개선, 혁신적 포장재 도입,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실천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국제 협상은 지체되고 있지만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적 감축 방식의 도입과 ‘순환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사용·재활용을 반영하고, 대체 소재와 회수·재활용 인프라를 확충하며, 재활용 가치사슬 전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WWF는 글로벌 NGO로서 PACT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축적한 노하우와 기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원사들의 실질적인 전환을 지원합니다. 섹터별 기업 장기 감축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고, 기업과 정부, 관계 기관 등이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미 많은 국가가 생산자책임제(EPR)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플라스틱 오염 해결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WWF는 계속해서 PACT를 통해 더 많은 기업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며, 플라스틱 감축을 넘어 진정한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WWF / Yunardi Joepoet



제1장 플라스틱 감축 이니셔티브 PACT(Plastic ACTion)

© naturepl.com / Franco Banfi / WWF

PACT(Plastic ACTion) 소개

PACT는 WWF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고자 하는 다자간 선언이다.

1. PACT의 비전



PACT(Plastic ACTion)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WWF가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협약이다. 기업들은 제품 생산 단계부터 디자인과 포장재 사용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중장기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PACT는 2019년 WWF 싱가포르 본부에서 출범했으며, 에비앙, 하얏트, 힐튼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했다. 이들은 1,20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를 감축하는 데 기여했다.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에 이어 2021년 한국에서도 PACT 선언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시작했다.

2. PACT의 목표

PACT에 가입한 기업들은 1) 범분야별 협력 기회를 찾고, 2) 개별 기업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범분야별 협력 기회

첫째, PACT에 가입한 기업들은 비즈니스 분야에 제한 없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식품 및 음료, 화장품 및 생활용품, 호텔,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PACT 연간 성과보고서를 통해 플라스틱 감축 사례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다.

2) 개별 기업의 목표 설정

둘째, PACT에 가입한 기업들은 WWF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장기 전략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임직원 교육을 통해 플라스틱 절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WWF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공식 채널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다.

3. PACT 가입 기업 소개

한국의 PACT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깊이 공감하는 국내 6개 기업의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 15개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기업들은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산업별 특성과 기업별 상황에 맞춰 각각의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씨에이치코스메틱, 아모레퍼시픽, 아임에코, 엑스와의지, 올가니카, 우리카드, 우아한형제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코오롱LSI·MOD, 풀무원, LG생활건강, SK인텔릭스 총 15개 가입 기업이 있다.

가입 기업



PACT 마일스톤

한국WWF는 기업들이 플라스틱 발자국을 감축하고 완전한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2021년 4월 PACT(Plastic ACTION)를 출범했다. 그동안의 한국의 PACT 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PACT 선언식

2021년 4월 온라인 선언식을 통해 한국 WWF에서 공식적으로 PACT가 출범하였다. PACT 가입 기업 및 한국WWF의 대표자들이 함께 하여 공동의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2. 연구 보고서

2022년 2월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생물종, 생물다양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한글판 발간



WWF의 주관으로 알프레드 베게너 해양극지연구소(AWI) 연구진이 집필한 이 보고서는 플라스틱 오염이 전 세계의 해양, 해양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조사했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즉각적이고 통일된 국제적 행동이 요구됨을 시사했다.

3. 라운드테이블

2021년 6월
제1차 라운드테이블

PACT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제1회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플라스틱 관련 산업별 현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각자의 목표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1년 12월
제2차 라운드테이블

신규 PACT 가입 기업 및 관심 기업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제2회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제2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업들의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과 지속가능한 신소재 연구동향이 소개되었다.

2023년 6월
제3차 라운드테이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동향과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소개하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배경이 모든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에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WWF는 INC에 대비해 고위험 플라스틱 제품을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분류하고, 클래스 1 제품군은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하며, 클래스 2 제품군은 안전한 유통 및 관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함을 설명했다.

2024년 2월
제4차 라운드테이블

제4회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의 처리 비용이 고소득 국가보다 중저소득 국가에서 약 10배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엘렌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 EMF)은 플라스틱이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라운드테이블은 기업 간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정책·기술·소비 행동 변화를 연결하며, 업계와 소비생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4. 성과보고서



2022년 7월 성과보고서 발간

2022년 한 해 PACT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기업들의 연간 성과를 담은 성과보고서가 발간되었다. PACT에 가입한 한국 기업들의 감축 노력으로 약 5,120톤의 플라스틱이 절감되었다.



2023년 7월 성과보고서 발간

2022년 PACT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기업들의 연간 성과를 담은 성과보고서가 발간되었다. PACT에 가입한 한국 기업들의 감축 노력으로 약 11,915톤의 플라스틱이 절감되었다.



2024년 7월 성과보고서 발간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PACT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기업들의 연간 성과를 담은 성과보고서가 발간되었다. PACT에 가입한 한국 기업들의 감축 노력으로 약 18,509톤의 플라스틱이 절감되었다.

5.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



WWF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의 채택을 촉구하며, 엘렌 맥아더 재단과 함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BCGPT)’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BCGPT는 스타벅스, 네슬레, 코카콜라 등 전 세계 220여 개 기업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글로벌 연합체로, 유해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의 단계적 퇴출, 국제적 설계 기준 마련,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이행 재정 확보 등 협약의 핵심 요소를 산업계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다. WWF는 BCGPT 활동을 국내에 소개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항공, 풀무원, BYN블랙야크 등 국내 기업들도 가입하여 글로벌 감축 논의에 동참하고 있다. WWF는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협약 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국 PACT 기업의 공동 플라스틱 감축 성과

1. 요약 (약 12,457톤)



소비 후 재활용 사용량 증가

재활용 플라스틱 중에서도 소비 후(Post-Consumer)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 소비 후 재활용 평균 사용 비율은 8.1%로, 전년도(5.6%) 대비 약 2.5%p 상승했다. 특히 엑스와이지는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의 30%를 소비 후 재활용 원료로 대체하였으며, 아모레퍼시픽과 아임에코도 10% 이상의 비율을 달성하는 등 선도 기업의 실질적 이행이 확인되었다.

산업 후 재활용 사용은 여전히 저조

반면, 산업 후(Post-Industrial)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24년 기준 해당 항목을 보고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기업은 여전히 신재 플라스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 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 및 정책적 유인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생산 과정 중에 발생한, 아직 최종 제품이 되지 않은 플라스틱 부산물이나 스크랩(scrap)을 의미하며, 이를 재활용하여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 가능성 중심의 제품 설계 확산

사용된 플라스틱의 '기술적 재활용 가능성' 항목 역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2023년 평균 55% 수준에서 2024년에는 87.7%까지 상승하며, 많은 기업이 재활용을 고려한 디자인 전환(Eco-design)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플라스틱 순환성을 높이고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간 격차 존재,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필요

한편, 기업 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에는 여전히 편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소비 후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 비율은 기업별로 0.05%에서 30%까지 큰 차이를 보이며, 기술적 재활용 가능성 또한 71%~100% 범위로 다양하다.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선도 기업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후속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 학습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 PACT 기업의 개별 감축 노력

식품 및 음료(F&B)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경량화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아이시스 300ml에 ET-CAP을 도입하여 병의 높이를 축소하고, 2024년에는 500ml와 1L 용량으로 이를 확대 적용해 PET병 중량을 줄였다. 또한, 2024년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9.4g 초경량 아이시스를 출시해 기존 제품 대비 18.9%의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했다. PET병 공병 두께를 최적화하여 640ml 이하 탄산음료와 소주 PET병에서 각각 2g, 500ml 이하 어셉틱 PET병에서 4g을 경량화했다. 2024년 6월, 롯데칠성음료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2025년 1월에는 재생원료 10%를 적용한 사이다 300 ECO를 출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일유업
매일유업은 지속가능한 포장 환경 조성을 위해 경량화(Reduce), 대체소재 도입(Replace), 재생소재 적용(Recycle), 무라벨(Label-less)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포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제품인 컵커피, 연유, 대용량 발효유 등에서 용기 구조를 최적화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한편,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개선하였다. 특히, 발효유 제품의 PP 캡을 종이로 대체하는 등 기존 플라스틱 부자재를 지속가능한 재료로 전환하며 환경 영향을 줄이고 있다. 재생소재 활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멸균팩 제품에 재생 수축필름을 적용하여 자원순환 기반의 포장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다양한 포장재로 재생수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PET 및 PS 용기에는 무라벨을 확대 적용하여 분리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였다. 더불어 캡과 빨대를 제거한 ‘컴포리드’ PP 용기 제품을 확대하고, 연유 파우치 규격을 최적화하여 환경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개선안을 적용하고

있다. 2025년에도 동일한 전략 방향을 유지하며, 제품 설계 초기 단계부터 지속가능한 요소를 반영한 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사와의 공동 개발 체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한 포장 정책을 실현할 것이다.

아임에코
산수음료(주) 브랜드 아임에코는 Bottle-to-Bottle 재활용을 위한 Closing the Loop 캠페인을 올해 더욱 확대하였다. 다양한 소비자들이 모이는 페스티벌과 박람회 등 대형 행사에서 100% 사탕수수 보틀에 담은 미세플라스틱 걱정 없는 생수 고마운샘을 배포하며 플라스틱 감축 활동을 진행하고, 사용 후 포장재를 직접 회수·재활용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다회사용이 가능한 대용량 PC 제품을 확대하여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였으며, 석유 기반이 아닌 식물유래 성분의 생수 고마운샘 마케팅을 강화하여 플라스틱 감축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체 소비를 유도하였다.

엑스와의지
엑스와의지는 2024년에 서울시청 무인 카페에 리유저블 컵을 도입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무인 카페에서 리유저블 컵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따라 무인 카페에는 리유저블 컵 사용 기술을 갖춘 회사들이 입점하도록 추진하였다. 2025년에는 에버랜드 점에 리유저블 컵을 도입하고, 테마파크 내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여 리유저블 컵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가니카
올가니카는 신규 사업인 레몬즙 스틱 제품의 성장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제품 용량 미니화, 용기 경량화, 라벨 규격 축소 등을 통해 플라스틱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포장 소재 도입 및 Recycled PET 전환을 통해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각 PACT 가입 기업은 자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혁신적 포장재 도입과 재활용 확대 등 실질적인 플라스틱 저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풀무원
풀무원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전사적 차원의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사업 단위별로 다양한 감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2024년에는 아임리얼 전 제품에 100%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CR-PET 100%)를 적용하고, 샘물 330ml 제품에 CR-PET 25%를 도입하여 신재 플라스틱용량을 줄였다. 식품 부문에서는 두부 트레이 경량화, 냉동밥 제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샘

물 무라벨 제품의 순차적 확대, 다논 요거트 컵 경량화 등 다양한 개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4년 한 해 동안 총 325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25년에는 녹즙 캡 경량화, 종이 트레이 사용 제품 확대, 재생 플라스틱 원료 사용 확대, 무라벨 제품 확대 등 추가적인 플라스틱 저감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풀무원은 앞으로도 플라스틱 감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경영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퍼스널케어(Personal care)

씨에이치코스메틱 (차홍)

씨에이치코스메틱은 신규 제품 품목에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원터치캡을 적용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9,000개의 디스펜서를 도입했다.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PET 제품에는 수분리 라벨을 적용하고, PE, PP 단일 소재 제품에는 동일 재질 라벨을 적용하여 재활용성을 강화했다. 2025년도 이후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의 도입과 비금속 디스펜서 적용 펌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r-PET 적용 확대 및 포장재 경량화를 통해 2023년에 신규 석유 유래 플라스틱 1,900톤을 감축했다. 또한, 포장재에 대한 4R(Recycle, Reuse, Reduce, Replace) 전략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하고, 재활용성을 향상시키며, 용기 재이용 및 회수를 통해 플라스틱 순환 모델을 구축했다. 플라스틱 포장재 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 차원에서 관련 목표와 세부 KPI를 신설하고, 포장재의 환경 영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공병 수거 캠페인을 통해 2,592톤의 공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표로 삼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종이 분리배출 지정 승인을 받은 리필파우치를 개발하였으며, 기존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70% 감축한 종이 튜브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용기 및 포장재의 경량화를 통해 24년 577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했으며 재활용 플라스틱도 579톤 사용했다. 향후 튜브 제품의 두께를 추가로 감소시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줄일 계획이며, 파우치 내 발포합성수지 적용으로 포장재 두께를 더욱 줄일 예정인데, 현재 사용성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호텔(Hospitality)

위커힐 호텔앤리조트

위커힐 호텔앤리조트는 객실 어메니티와 서비스 제품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저감 및 지속가능한 소재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객실 내 주요 어메니티인 컵, 칫솔, 빗 등을 대나무 및 옥수수 전분 기반 생분해성 소재로 전면 교체하였으며, 샴푸, 바디워시, 로션 등은 기존 일회용품에서 대용량 용기로 전환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했다. 포장재의 경우에도 일부 품목은 100% 생분해 소재 박스 및 에어캡으로, 녹말 아이스팩은 물 아이스팩으로 교체하였으며, 비닐류는 생분해성 필름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제품 구매 비중 확대 및 구매 기준 강화를 통해 저탄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WWF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사용 감축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객실 어메니티를 다회용 또는 생분해성 소재로 전환하고, 식음 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용기를 도입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폐기된 린넨을 업사이클링해 벤치로 제작, 지역 학교에 기부하는 등 플라스틱 대체 및 재활용 소재 활용 사례를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리조트는 임직원 참여형 ESG 활동과 자연보전 인식 확산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WWF와 함께 진행한 ‘Love It or Lose It’ 캠페인에서는 150m 길이의 LED 기둥을 활용해



© Emanuele Biggi / naturepi.com / WWF

배달 서비스(Delivery service)

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은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배달업계 최초로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기능을 도입하였고, ‘기본찬 안 받기’ 기능도 추가하였다. 2022년부터는 배민 앱 내 ‘다회용 배달용기’ 선택 기능을 도입하여 서비스 지역을 점차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4년에는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을 발표하며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지속가능 패키징 확대와 앱 내 친환경 선택 기능 도입 등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예정이다. 다회용기 서비스 활성화와 고객의 친환경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 ‘서울숲재즈 페스티벌’에서 현장 배달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환경 기념의 날을 맞아 앱 내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참여 이벤트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다회용기 홍보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B마트의 친환경 제품 포장재 도입과 배민 문방구의 종이 패키징 적용을 통해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위협받는 멸종위기종의 생태를 전달하며, 방문객에게 자연 보전 메시지를 알렸다. 앞으로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기반의 지속가능한 운영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코오롱LSI·MOD

코오롱LSI·MOD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호텔, 휴게소, 급식 부문에서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호텔에서는 욕실 내 재사용 디스펜서를 도입하고, 체크인 시 일회용 어메니티 제공을 중단한 대신 지속가능한 소재의 어메니티를 유상 판매하고 있다.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 시 옥수수 전분 빨대와 나무 소재 커를러리를 제공하며, 음료 캐리어는 비닐에서 종이 소재로 전환하였다. 또한 종이 안내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휴게소에서는 취식 고객 전원에게 다회용 용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급식 부문에서는 종이·사탕수수·전분 등 지속가능한 포장재를 도입하고, 1인분 소용량 선택지를 확대해 과잉 포장을 줄이고 있다.

금융(Finance)

우리카드

우리카드는 2024년 10월부터 다이옥신을 배출하지 않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 플레이트’를 실물 카드에 적용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소재는 업계 유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BIG(Bio Insure Green)’ 필름 소재로, 현재 ‘카드의정석 EVERY DISCOUNT / TEN’ 2종에 적용되어 카드 발급 시 해당 플레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화하였다. 이러한 플레이트의 도입으로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비율이 +0.05%p 상승하였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카드플레이트 상품을 확장하고 발급 좌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전제품(Home appliances)

SK인텔릭스

SK인텔릭스는 성능 향상과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품 개발과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력 제품인 정수기는 기능, 위생 및 에너지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소형화 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원자재 사용을 절감함으로써 사용자 친화성과 환경 책임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총 플라스틱 사용량을 전년대비 15%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는 대체가능한 소재 발굴과 적용 노력으로 플라스틱 사용 저감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imPACT funds 활동

1. 제5차 제6차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4년 10월, WWF는 제5차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INC-5 협상 시점을 앞두고 기업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참여 기업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국환경공단 문갑생 처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과 함께 폐기물 전 과정 통합정보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 선임연구원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동향을 공유하였다. WWF는 참여 기업 13곳의 2023년 플라스틱 감축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총 감축량은 18,059톤으로 전년 대비 약 55%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신규 참여 기업인 롯데칠성음료를 소개하며 기업 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하였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자사의 감축 목표와 국제 협약 지지 입장을 공유하였으며, 기업 간 협업과 정책 연계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2025년 3월에는 소비자 행동 변화와 기업의 친환경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중심으로 제6차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고려대학교 성용준 교수는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실천을 저해하는 심리적·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나 혼자 실천해도 소용 없다’는 무력감과 친환경 제품의 높은 가격이 주요 방해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윤리적 소비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동 간의 간



극을 줄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국소비자원 박준용 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친환경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ESG 커뮤니케이션에서 과학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WWF는 Tesco, Nestlé 등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사례를 통해 포장재 감축, 리필 시스템 도입, 생분해성 포장 실험 등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전략을 공유하였으며, ReSource 플랫폼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기업의 투명한 ESG 보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기업들은 패널토론을 통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필요성, 소비자 신뢰 형성 방안, 세대별 인식 차이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2. 부산 침적쓰레기 수거 성과

2024년 11월, WWF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제5차 INC-5이 개최되는 부산에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현장 실태를 알리기 위한 침적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번 활동은 협상 직전인 11월 4일부터 약 일주일간 부산 가덕도 인근 해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WWF의 전략적 메시지 전달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WWF는 2021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력하여 imPACT 펀드를 활용한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본 사업은 민간 기금이 정부 주도의 폐어구 수거 활동에 최초로 참여한 사례로, 공공 시스템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유령어망 방지와 해양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연평도, 제주도, 강원도 양양 인근

해역 등에서 약 180톤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하였고, 2024년에는 부산 가덕도 일대에서 약 45톤을 추가로 수거하였다.

현장에서 확인된 침적쓰레기에는 통발, 폐어구, 로프, 비닐 가림막 등 다양한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가덕대교 공사 현장에서 유실된 자재로 추정되었다. 수거된 어구에 얽힌 채 폐사한 볼락, 게 등 해양 생물들도 함께 발견되며,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WWF가 발간한 2024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해양 생태계의 야생동물 개체군은 평균 56% 감소하였다. 이는 해양 생태계의 기능 약화는 물론 기후위기 악화로도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WWF는 2040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지금의 세 배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WWF는 이번 침적쓰레기 수거 사업을 통해 협상장 밖 현장의 목소리를 국제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과학 기반의 정책 제언과 현장 중심의 실천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3.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는 약 180여 개국 3,0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WWF는 본 협상의 공식 옵저버로 참여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국내외에서 전개하였다.

협상 개막 전인 11월 21일, 한국WWF 사무실에서 주요 환경 전문 언론을 대상으로 스터디 세션을 개최하고, WWF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인 에릭 린데베르그(Eirik Lindebjerg)를 초청하여 국제 협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대 핵심 조치—①유해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의 단계적 퇴출, ②무독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적 설계 기준 구축, ③시스템 전환을 위한 자원·자원 확보, ④이행 강화 위한 구조 마련—을 소개하였다. 협상 기간 중 WWF는 데일리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협상 문안과 진행 상

황을 신호등 색으로 시각화해 전달함으로써, 복잡한 협상 내용을 대중과 언론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11월 29일에는 WWF를 비롯한 국제 NGO들이 벅스코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타협이 아닌 용기”를 주제로 강력한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연대의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더불어 WWF는 협상 개막 전부터 주요 보도자료 및 입장문을 배포하며 (11월 22일), 전 세계 300만 시민 서명 전달(11월 24일), INC 의장 수정 초안에 대한 평가(11월 29일), 협상 종료 이후의 입장 정리(12월 2일)까지 전략적인 시점별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갔다.

특히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WWF는 글로벌 서명 캠페인 ‘Ban It’을 통해 INC-5 개막 전까지 47만여 명의 온라인 서명을 모았으며, 11월 24일에는 그린피스, BFFP(Break Free From Plastic)와 함께 180여 개국 시민 300만 명의 서명을 공식 협상단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전달식에는 어린이 기후 소송단, 영국 시인 니키타 길, 르완다 환경관리청장, 미국 상원의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했다. 아울러, 배우 다니엘 대 킴과 협력한 ‘다니엘 킴’ 캠페인 영상, IFC몰·GS건설·BYN 블랙야크 본사 등지의 제로파워 챌린지 팝업 부스, 부산 전역의 LED 옥외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지지 확산을 도모하였다.

이외에도 WWF는 INC-5가 열린 부산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자,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된 ‘국민공감 문화예술교육 행사’에서 전시를 운영하였으며, 환경부 주관 부대행사 ‘Rethinking Plastic Life’에 참여해 ‘성공적인 협약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이번 INC-5는 최종 문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WWF는 협상과 시민사회의 연결 고리로서 실질적 목소리를 전달하고, 다가올 INC-5.2(속개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담긴 협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WWF는 향후에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정부·시민사회의 공동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4. 주민자율수거사업 성과



WWF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립공원공단과의 협력 하에 통영 연대도 6개 해변에서 약 23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본 사업은 WWF가 2023년 국립공원공단과 체결한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주민자율수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연대도는 통영항 남쪽에 위치한 도서 지역으로, 해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곳이다. 그러나 지리적 접근성과 인력 고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양쓰레기 문제가 구조적으로 방치되어 왔다. WWF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수거활동을 위한 인건비 및 장비 지원, 정화운반선 운영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을 지원해 왔다.

2024년에는 수거 참여 인원이 확대되고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전년도 약 18톤 대비 약 25% 증가한 23톤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운항 빈도를 주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수거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단순한 청소 활동을 넘어, 주민 중심의 자연 보전 모델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WWF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환경 인식 개선과 생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하고 있다. 향후에는 수거 지역을 확대하고 국립공원공단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No Plastics in Nature”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5. ‘에코다이빙’ 해양 생태계 보전 교육



2024년 12월, WWF는 강원도 고성군 문암항 인근에서 진행된 ‘에코다이빙’ 행사에 참여하여 해양 생태계 보전 교육을 실시하고 수중 정화 활동을 함께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한국과학잠수연구소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해양 환경 보전에 높은 관심을 가진 дайве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중 재난 구조 훈련과 수중 쓰레기 수거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WWF는 본 행사에서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과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 그리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다양한 보전 활동을 주제로 참가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페어 구, 밧줄 등 플라스틱 기반 쓰레기의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참여자들이 보다 책임 있는 다이빙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WWF는 2023년부터 한국과학잠수연구소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다이빙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재난 대비 및 구조 훈련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중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에코다이빙 활동은 단순한 수중 정화 활동을 넘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로 기능하고 있다. WWF는 앞으로도 해양 환경의 회복과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6. 서울외국인학교 자연보전 협업 프로그램

WWF는 미래세대의 환경 감수성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 서울외국인학교(Seoul Foreign School)와 자연보전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협업은 학생들이 생물다양성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이해하고, 일상 속 행동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었다.

4월 26일, WWF는 서울외국인학교의 연례 행사인 International Fair에서 바다거북 등 멸종위기종 보전을 주제로 한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였다. WWF는 현장에서 ‘애니스테이(ANISTAY)’, ‘클릭 투기부(Click to Give)’와 같은 참여형 캠페인, 포토부스 및 스티커 타투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생물종 보전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렸다. 특히, WWF Club 소속 학생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또래 청소년의 시선에서 자연보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6월 2일에는 6학년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No Plastics in Nature’를 주제로 한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시청각 자료, 체험형 게임, 퀴즈와 실천 다짐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냈다.

WWF는 미세플라스틱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로를 설명하고,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과 분리배출 기준을 외국인 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며, 실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안내하였다. ‘재활용 분류 챌린지’와 ‘Panda Pledge Wall’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 의지를 직접 표현하였다.

이번 협업은 WWF가 지향하는 청소년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 모델을 현장에서 실현한 사례로,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WWF는 앞으로도 국제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의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7. 해양쓰레기 대응 정보·경험 교류 네트워크 세미나 발표



WWF는 2025년 6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한 제8차 ‘해양쓰레기 대응 정보·경험 교류 네트워크 세미나(해쓰단당)’에 참여하여, WWF가 국립공원공단 및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율수거사업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쓰레기와 지역민 참여 소득’을 주제로 다양한 기관, 청년 연구자, 지역 실무자,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해양쓰레기 해결 방안과 지역 참여 기반 모델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WWF는 본 세미나에서 2023년부터 경남 통영 연대도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율수거사업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WWF가 국립공원공단,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설계한 참여형 보전 활동으로, 지난 2년간 약 1,000명의 주민이 직접 수거 활동에 참여하여 총 43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WWF는 주민 참여 기반의 정화 활동이 단순한 수거를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주민 소득 보완, 해양 생태계 보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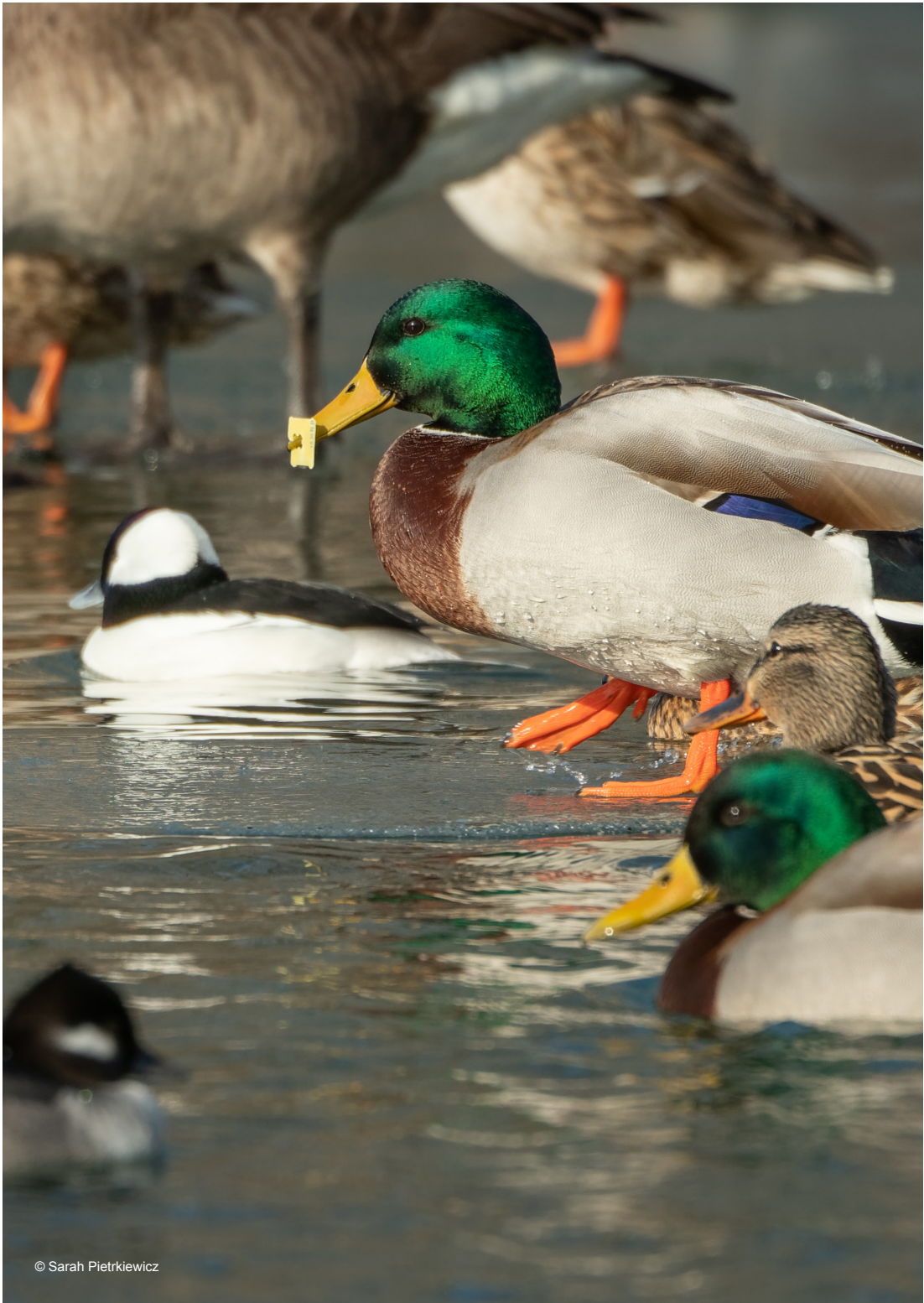
이러진 패널토론에서는 주민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 지원의 필요

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WWF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주민 참여 확대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WWF는 선촌마을, 제주연구원, (주)우시산 등과 함께 지역 맞춤형 해양쓰레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며, 다양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WWF는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참여 기반의 자연 보전 모델을 보다 많은 해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해양 생태계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imPACT funds에 후원해 주신
기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광주신세계, 롯데칠성음료, 부쉬맨, 세스코,
씨에이치코스메틱(차홍), 아모레퍼시픽



© Sarah Pietrkiewic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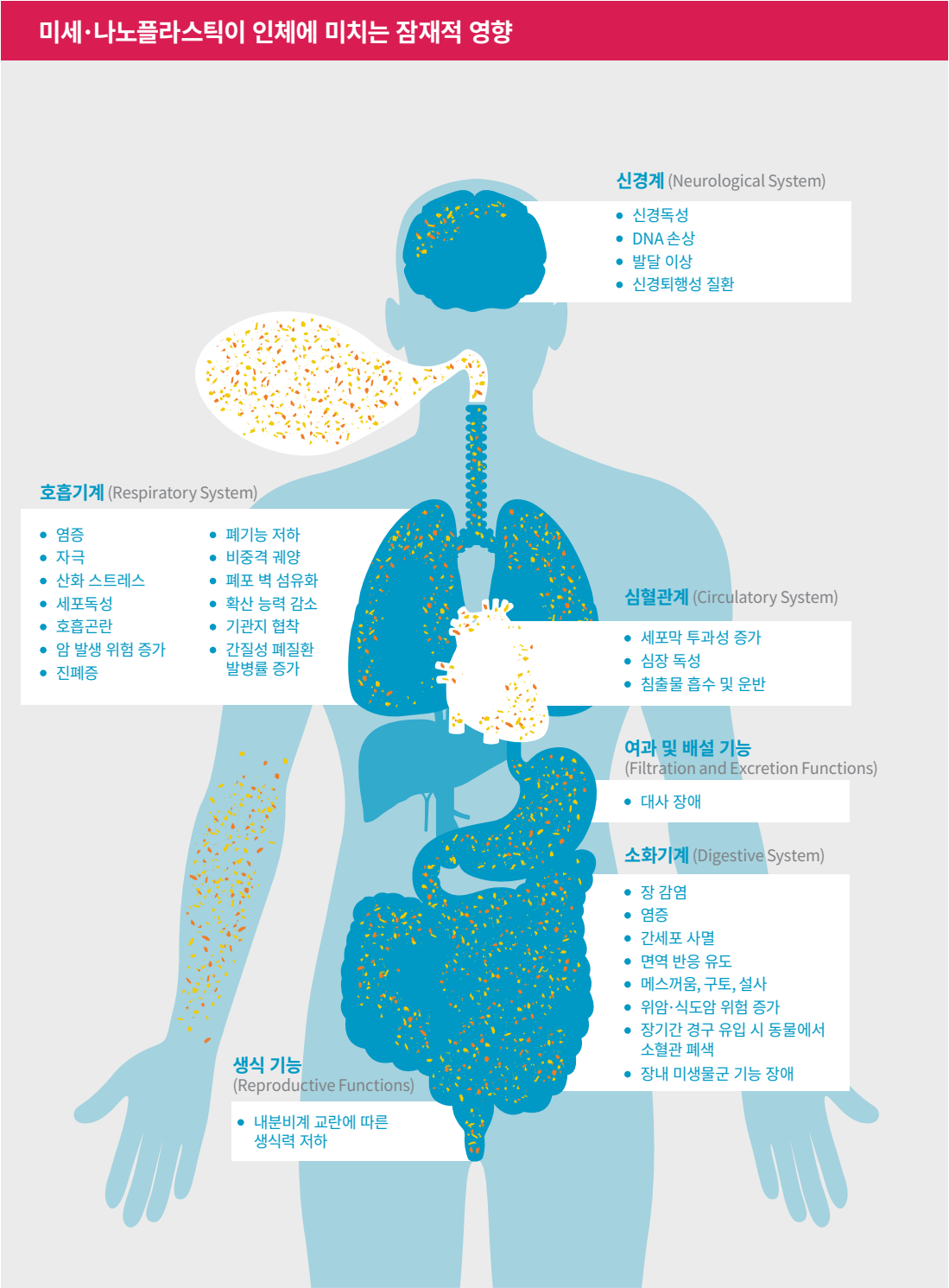
Plastics, Health, and One Planet 보고서 소개

플라스틱, 건강, 그리고 하나의 지구 – 과학 기반의 글로벌 규칙 요구

WWF와 영국 버밍엄대학교는 약 200여 건의 최신 과학 연구를 종합한 「플라스틱, 건강, 그리고 하나의 지구」 문헌 보고서를 2025년 7월 28일 공개했다. 본 보고서는 미세·나노플라스틱(MnP)과 플라스틱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6가지 유해 화학물질 군이 인간과 동물, 생태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내용

- 1 플라스틱 오염은 단지 자연과 야생동물의 위기만이 아니다. MnP와 유해 화학물질은 인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 2 플라스틱은 환경 전반에 누출되어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해양생물·토양생물 등 다양한 생물의 생리·생존을 저해하고 있다.
- 3 MnP는 호흡, 섭취, 피부 흡수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며, 폐, 태반, 장, 뇌 등 주요 기관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 4 MnP는 염증 유발, 동맥 내 축적 등 심혈관 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등)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5 MnP는 제조과정에서 첨가되는 유해 화학물질(프탈레이트, 비스페놀, PFAS, 난연제, 중금속 등)의 운반체로 작용하며, 다음과 같은 건강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 내분비계 교란 및 호르몬 관련 암 (유방암, 고환암 등)
 - 생식능력 저하
 - 만성 호흡기 질환 및 천식 위험 증가
 - 혈관 기능 장애를 동반한 심혈관계 변화
 - 대사질환 (비만, 당뇨)
 - 신경발달 장애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인지능력 저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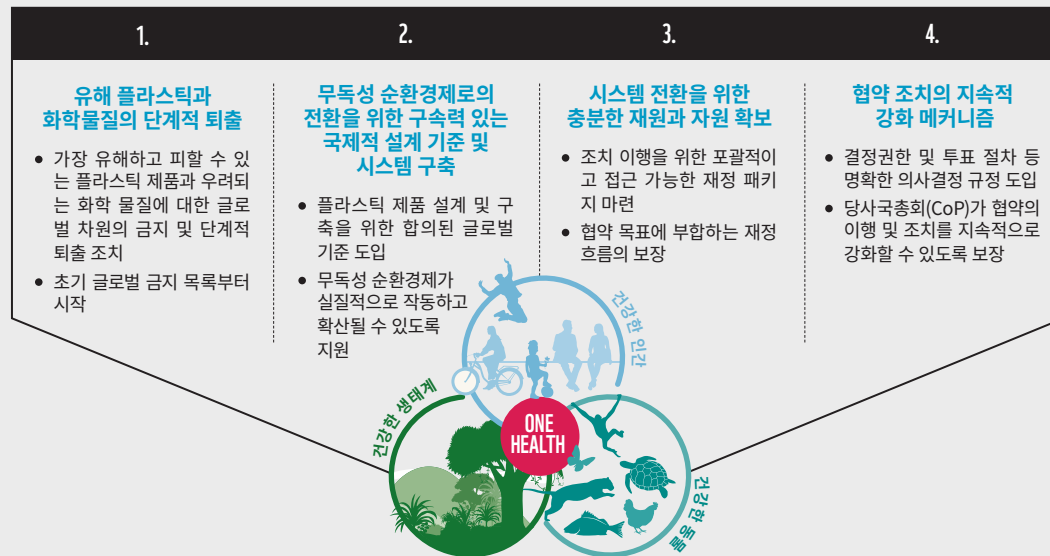


정책적 시사점 및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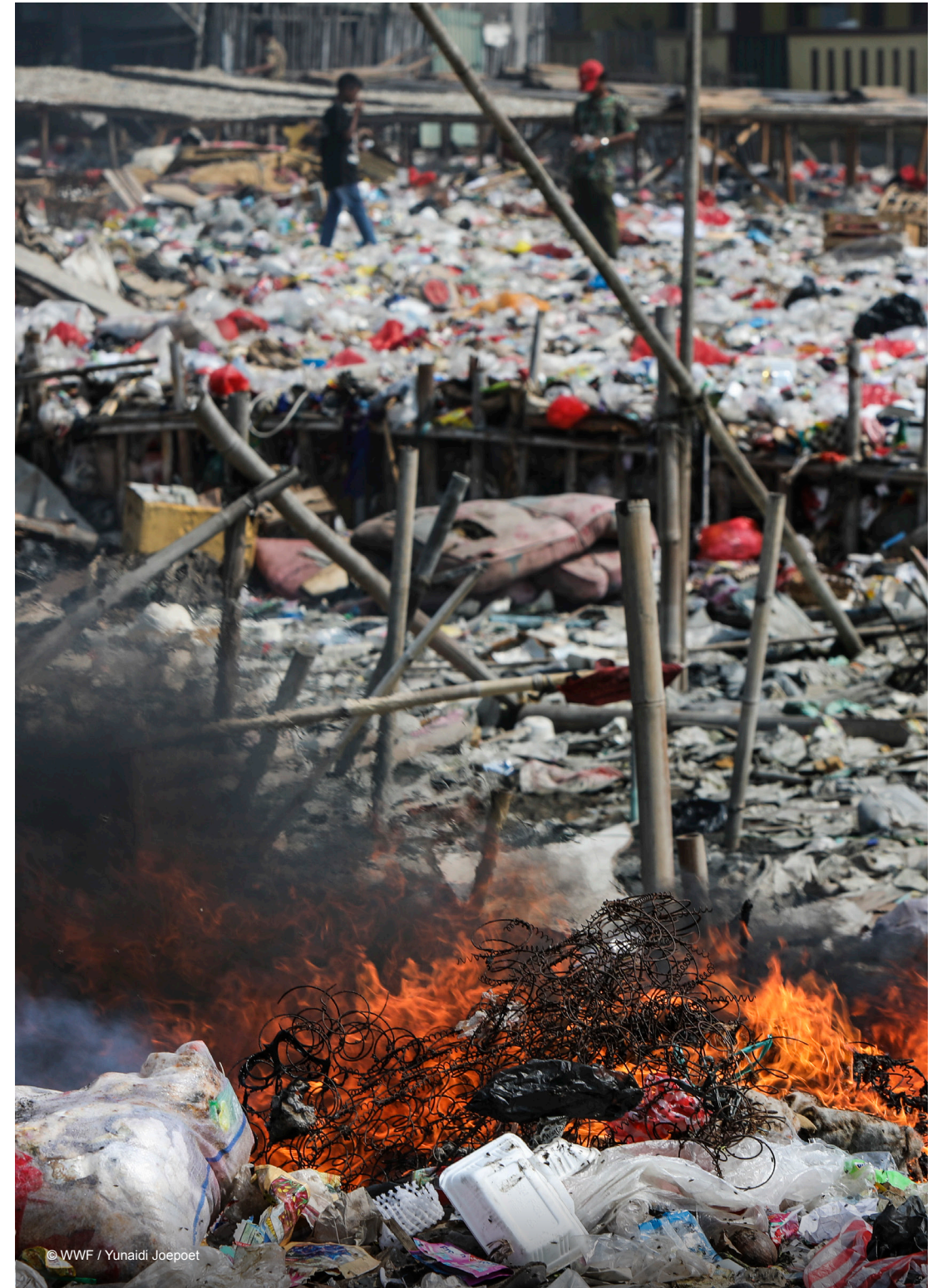
- 1 플라스틱 및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거의 보편적이고 비자발적인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 기반의 예방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2 플라스틱 오염은 지구 전역, 생태계, 실내외 환경, 식수·식품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류 전체의 건강 부담을 높이고 있다.
- 3 2018년 이후 1,400건 이상의 연구가 발표되며 과학적 증거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반한 강력한 글로벌 규제가 요구된다.
 - 이는 과거 오존층 파괴 물질을 다룬 ‘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이 과학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 선제적 대응을 통해 효과를 거둔 국제협약의 사례와 유사하다.

야심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원헬스(One Health)’ 접근을 위한 필수 요소 (Must-haves)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이 4가지 필수 요소는 ‘원헬스(One Health)’ – 인간, 동물, 생태계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원칙에 기반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



© WWF / Yunaedi Joepoet



제2장 나아갈 길

© naturepl.com / Bence Mate / WWF

2025-2030 No Plastics in Nature 전략 소개

WWF는 2030년까지 자연 생태계로의 플라스틱 유출을 종식시키기 위해, 플라스틱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한 세 가지 전략 목표 (Reduce, Redesign, Circulate)와 이를 뒷받침하는 네 가지 핵심 기반 (Just Transition, Finance, Transparency and Disclosure)을 설정하였다. 아래는 각 전략별 주요 목표와 실행 방안이다.

Reduce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감축

목표

- 공급망 수준에서의 규제 및 시장 기반 조치를 통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
- 불필요하고 유해한 플라스틱 제품의 금지 또는 단계적 퇴출
- 지속가능한 대체재의 책임 있는 사용 확대

전략적 개입

- 정책 전환:** 글로벌 차원의 유해 제품 및 화학물질 금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 촉진, 통일화된 국제 정책 프레임워크와 일치된 국내 규제 개발 지원
- 시장 영향력 강화:** 기업의 자발적 약속 및 고위험 플라스틱 제품 퇴출 추진
- 지역 해법 확대:** 지역 차원의 규제 이행 및 인센티브 확대
- 공동행동 촉진:** 중소기업 및 정책결정자 대상 지속가능한 전환 지원,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



WWF의 2025-2030 ‘No Plastics in Nature’ 전략은 물류 시스템 전환, 행동변화 캠페인, 글로벌 파트너십과 협력 기업 참여, 정책 제언,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자연 생태계로의 플라스틱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감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Redesign

제품 및 시스템의 재설계

목표

- 재사용을 가능하게하고 재활용 원료 사용을 늘릴 수 있는 제품 설계 규칙 및 시스템의 표준화
- 지속가능한 디자인 및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도입

전략적 개입

- 정책 전환:**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규모 재사용 시스템, 보증금 반환제도(DRS) 확대 등 국가 정책 도입
- 시장 영향력 강화:** 자발적 제품 디자인 표준 도입 유도
- 지역 해법 확대:** 지역 기반 재사용/재활용 제품 디자인 실증
- 공동행동 촉진:** 우수한 EPR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확산, 제품 설계 기준 및 인센티브 확대

Circulate

재사용 및 재활용 시스템 확대

목표

- 재사용 및 재활용 솔루션을 통해 환경 유출 방지
- 지역 폐기물 관리 기술 및 역량 강화

전략적 개입

- 정책 전환:**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책 참여 촉진 (공정 전환 보장)
- 시장 영향력 강화:** 기업의 EPR 참여 및 재사용 프로그램 추진
- 지역 해법 확대:** 우수 사례 실증, 장기 전략 수립, 효과성 평가, 지역별 정책 통합
- 공동행동 촉진:** 물류 시스템 전환, 행동 변화 캠페인, 글로벌 파트너십과 협력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

공정 전환 (Just Transition)

- 목표**
-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취약 계층의 참여 보장 및 권한 강화
- 전략적 개입**
- 정책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보장, 국제 플랫폼 강화

재정 (Finance)

- 목표**
- 플라스틱 감축 및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공공·민간 재정 확보
- 전략적 개입**
- 혁신적 재정 모델 도입 (공공-민간 결합 금융, ESG 채권 등)
 -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한 리스크 완화 방안
 - 생산·소비 유인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개혁

투명성과 공시 (Transparency & Disclosure)

- 목표**
- 기업과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사용·배출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책임 경영 실현
- 전략적 개입**
- 플라스틱 사용량 데이터 공개 플랫폼 구축 및 확산
 - 공시 의무화 및 법제화 추진
 - 투자기관의 ESG 통합 평가 기준에 플라스틱 리스크 반영

WWF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가·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단지 자연보전을 위한 노력만이 아니라, 자원 효율성과 경제 구조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이다. WWF는 향후에도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을 바탕으로 각국의 플라스틱 대응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 Ake Ngiamsguan, iStockphoto, Getty Images

맺음말

WWF는 국내외 정책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환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협력하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해왔다.

PACT는 ‘No Plastics in Nature’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출범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누적 약 36,000톤의 신재 플라스틱 감축 성과를 달성했다. 기업들의 감축 노력의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며 올해의 감축량은 전년대비 줄었지만, 이는 플라스틱 절감 노력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는 현 방식의 한계를 넘어 보다 구조적이고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각 기업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8월 제네바에서 열린 INC-5.2 회의는 의미 있는 진전 없이 종료되어 WWF는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이번 결과는 플라스틱 위기가 여전히 통제되지 않은 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는 방치가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즉각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임을 보여준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함께 협력하고 책임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WWF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PACT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과잉 소비를 줄이며 재사용·재활용 기반을 확산할 것이다.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PACT 가입 안내 plastic@wwfkorea.or.kr



© Steve De Neef / National Geographic Creative

THE FUTURE OF OUR PLANET DEPENDS ON OUR ACTIONS TODAY.

© Brent Stirton / Getty Images / WWF-UK



WWF(세계자연기금)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입니다.

together possible. wwfkorea.or.kr

© 2025

© 1986 판다 도형 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전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동물기금)

® 'WWF'는 WWF의 등록상표입니다.